

■ SUMMARY ■

Historical Study of Korean Architecture (3)

Bong Jin Kang

The architecture of united Silla was developed under the influence of the culture of Tang dynasty of China. Kyongju, the capital of Silla, which was partially ruined during the 16th century Japanese invasion, is rich in relics. Still standing are the oldest astronomical observatory in the world, built in 647 A.D., and an ancient icehouse, once used to chill the food and drink of the royal household. In the 7th century, Kyongju was a center of culture and commerce for the Far East.

The Capital of Koryu, Kaesung, became the cultural center of the peninsula. The Koryu dynasty inherited the technique of past masters, but thereafter artists were content to refine forms and to rarefy colors.

During the 14th century the Koryu government became progressively weaker, and in 1392, General Yi, founded a new dynasty and

established its capital at Seoul. With the accession of the Yi dynasty, Buddhist influence vanished and Confucianism became the official religion.

One of the royal palaces of the Yi dynasty, the Kyongpok-kung, is typical one of its architecture. Here may be seen some of the finest specimens of Korean architecture remaining in Korea. The best Korean architecture is simple and vital, vigorous rather than delicately ornamented, and thoughtful rather than interpretative.

Typically oriental, such technique is inspired by a feeling of kinship with nature, a feeling which underlies all Korean culture and is seen even in the construction of houses, which are built with due regard for the spirits of the earth, air, fire, and water. It is deep-rooted culture, archaic rather than primitive.

한국 건축의 사적고찰 (끝)

강 봉 진

11. 통일 신라의 건축

통일 신라는 제29대 무열왕 원년(서기 654)으로부터 제56대 경순왕 9년(서기 935)에 고려 태조 왕건에게 멸망당할 때까지 281년 간을 말한다. 무열왕 때 당의 원조를 얻어 백제를 멸하고 문무왕(제 30 대) 때 당과 연합하여 고구려를 멸망시켜 국토를 통일하였다. 통일 후 경덕왕(제35대) 때까지 약 1세기 동안은 당 문화를 수입하여 제반 문물이 급속도로 발전하여 그 절정에 달하였다.

이에 따라 건축, 조각, 공예 등의 분야에 있어서도 당의 영향을 받아 현란한 신라의 예술 문화를 형성하였던 것이다.

(1) 불 사(佛寺)

신라는 삼국시대 부터 불교를 숭신, 장려하였다. 때문에 경주를 비롯하여 각지에 장엄한 대가람(大伽藍) 불탑의 건립이 흥륭하였다. 그러나 당대의 목조 건축은 병화로 인하여 현존한 것은 태무한 상태이며 다만 석탑, 전탑, 석등, 부도 등이 남아 있을 뿐이다. 문헌에 나타난 당시축조한 사찰명을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부석사	영주	문무왕	16년(서기 676)
사천왕사	경주	"	19년(서기 679)
봉성사	"	신문왕	5년(서기 685)
망덕사	"	"	"
임천사	"	"	"
인용사	"	"	"
봉덕사	"	성덕왕대	
감산사	"	"	19년(서기 720)
불국사	"	경덕왕대	
단속사	"	"	22년(서기 763)
굴불사	"	경덕왕대	
백원산남사	의안	"	16년(서기 757)
감은사	경주	해공왕	10년(서기 777)
봉은사	"	원성왕	10년(서기 795)
해인사	합천	애장왕	3년(서기 803)
진여원	오대산	성덕왕	4년(" 705)
영취사	동태	신문왕	3년(" 683)

기타 황성사(경주), 법릉사, 원연사, 말방리사(경주), 모화리사(경주), 백율사(경주), 민장사(경주), 천

관사(경주), 창림사(경주), 동천사(경주), 세달사(경주), 월정사(오대산), 천용사(경주), 무장사(경주), 유덕사(경주), 문수사(오대산), 유마라사(원주), 범어사(동래), 화엄사(구례), 금산사(김제), 갈항사(김천), 송광사(순천), 보림사(장흥), 동화사(대구), 용장사(경주), 선암사(순천), 무위사(강진), 도갑사(영암), 범주사(보은), 도피안사(철원), 유점사(회양), 장안사(회양), 성주사(보령), 남서혈원(공주), 쌍계사 등이 각지에 건조되었다고 한다. 이 중에서 특히 당대 건축의 대표적인 것은 유명한 불국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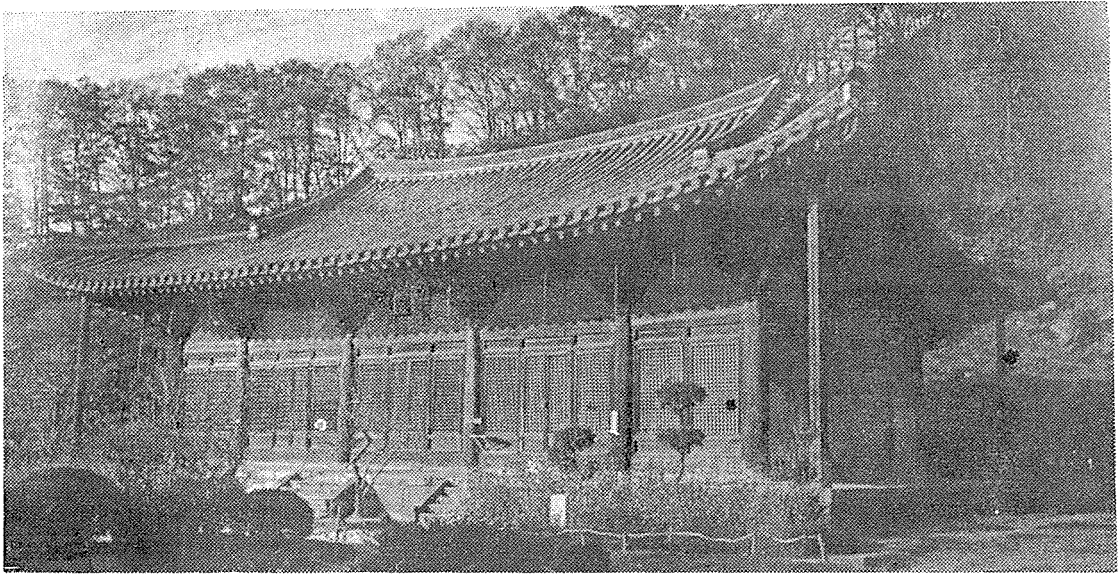
불 국 사

불국사는 법흥왕 27년에 창건한 것으로 진흥왕 6년에 일차 중수하고 문무왕 10년에 국상 김대성(國相金大城)이 25년의 세월을 소비하여 대규모의 가람을 완성하였다. 그러므로 사찰의 연기는 고신라에 있으나 현재 유지(遺址)는 경덕왕 때 중창 형식을 남긴 것으로서 그후 8, 9차의 중건이 있었으나 근본 형태는 그다지 변하지 않았다. 사찰은 고대지상에 축조하였는데 석재를 가지고 전면을 쌓고 동서에 자하문, 안양문의 2루문을 세우고 그분 전면에 기교한 구조로 백운교와 청운교를 가설하고 곳곳에 건물을 연결하는 보랑(步廊)을 두는 등 장려, 기묘한 미를 표현하여 당대의 예술미를 자랑하고 있다. 사찰의 배치는 당의 제도를 모방한 것이었으나 특히 전면의 석계단다리(청운교, 백운교)와 다보탑, 석가탑(무영탑) 등의 석탑은 신라 건축의 독창적 특성을 발휘하였던 것이다.

가람의 중앙에 대웅전과 극락전을 건립하고 무열전, 비로전, 관음전, 지자전, 광학자강당, 5백성상전, 천불전, 만세루 등의 루각, 전당을 즐비하게 건립하고 대웅전의 앞마당에는 동에 다보탑, 서에 석가탑을 세우는 등 당대 건축술의 우수하였음을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후 제51대 진성여왕이 또 불국사의 중건을 발기한 후 수차의 중수가 거행되었으나 이조 선조 26년 임진왜란을 당하여 병화로 석교보탑 이외의 목조건물은 전부 회진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러므로 현존한 목조건물은 다 그후에 재흥된 것이다.

(2) 탑 파(塔婆)

통일 신라에 건립한 탑파 중 대표적인 것을 열기(列



<부석사 무량수전 고려 우왕 2년(서기 1376)>

記)하면 아래와 같다.

익	산	패	더루사	5	층탑
충	주	탐	정리	7	층탑
경	주	불	국사	다	보탑
김	천	갈	항사	3	층쌍탑
구	례	화	엄사	3	층사리탑
여	주	신	록사	5	층진탑
안	동	7	층	진	탑
함	천	해	인사	3	층탑
양	산	통	도사	3	층탑
동	태	범	어사	3	층탑
경	주	패	정례사	13	층석탑

(3) 능 묘(陵墓)

통일 신라때 부터는 수당(隨唐)의 영향을 받아 거대한 능묘와 부도(浮屠)가 많이 축조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능묘는 태종무열왕능, 문무왕(掛陵)능, 각간묘(角干墓), 신문왕능, 성덕왕능, 경덕왕능, 현덕왕능, 흥덕왕능 등이 있다. 이들 능묘의 체(制)는 분능기부(墳隴基部)에 요석(腰石)을 두르고 각 방위에 의하여 12지상을 부각하여 배치하고 난간이 싸고 돈다.

능묘(墓) 앞에는 상석(床石)이 놓였고 참도 양측에는 문석(文石), 무석(武石), 석사귀부(石獅龜趺) 등이 놓였었다. 특히 개능(掛陵)의 12지상신석(十二支像神石)앞에 석란을 두는 것은 신라 고유의 창안이다. 또 고승대덕(高僧大德)의 덕행을 추모하기 위하여 부도를 세우기 시작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염거화상 부도(문성왕 5년 서기 843), 경주 불국사 광학부도(경

덕 왕때), 창원 봉림사 진경대사보살능운탑(경명왕 8년 서기 880), 장흥 보림사 보조선사영묘탑(현강왕 6년 서기 880년), 김재 금산사사리탑(신라말)등이 있다.

(4) 원 지(苑池)

월성 북에 있는 안암지(鴈鴨池)는 문무왕 배 궁원(宮苑) 안에 관 못으로 축석을 교묘히 하여 중국의 절경인 무산십이봉을 본떠서 못 가운데 조산(造山)을 만들고 각색 화초와 진금이조(珍禽異鳥)를 기르던 곳으로 굴곡심천(屈曲深淺)을 적당하게 배열하고 조금도 인공적인 감이 없이 아주 자연적으로 된 우미(優美)한 것이었다. 또 경주 남쪽 4km 가량에 포석정이 있다. 포석정은 옛날 중국에서 시작된 유상곡수연에서 본받은 것으로 직경 17. 8척 내외되는 범위에 포어형(鮑魚形)으로 화강석 돌흙을 짜고 물을 흐르게 하여 물 위로 술잔을 흘러 보내면서 화려한 잔치를 하였던 곳이다. 이러한 원지의 축조기술은 당대의 건축이 예술적이며 풍류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5) 석 굴

석굴암은 불국사 후산(토함산)에 축조한 것인데 경덕왕 10년 불국사를 조영한 국상김대성(國相金大城)이 전생부모의 명복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서 축조한 것이다. 양식은 북, 위, 수, 당(北, 魏, 隨, 唐)의 영향을 받았지만 상이한 점은 중국 석굴 양식이 자연 암벽을 개착하여 그 내부에 불상을 조각하였던 것에 대하여 경주 석굴은 화강석재로 석굴을 축조하고 그 위에 흙을 덮어서 자연석 석굴과 같이 보이도록 축조한 것으로 그 인공(人工)과 노력이 얼마나 컸던가를 능히 짐작할 수 있다. 내부 천정은 궁륭천정으로 구성하고

중심석에 연화형 조각을 장식하였다. 그리고 내부 각 면에는 불상을 조각하여 신라예술의 극치를 자랑하고 있다.

굴의 구조는 방형으로된 전실과 원형으로된 후실로 되어있다. 선도(羨道)에서 굴암으로 들어가는 어구 양편에는 팔각형 석주가 있고 후실로 들어서면 둥근주벽이 높이 약 3척, 폭 6척의 요석대 위에 높이 약 8척, 광 약 4척의 장판석(長板石)을 세워 벽을 삼고 판석 위에는 천부라한 제보살상(天部羅漢諸菩薩像)을 조각하였다. 다시 벽 위에는 10개의 감실이 있어 그 속에는 보살상과 거사상이 안치되고 그 상부로부터 기묘한 궁륭천정이 구조되고 천정의 중심석에는 연화문을 조각하였다. 중앙에는 높이 약 5척, 직경 약 2간의 석연좌가 있고 선도상부미석은 완만한 곡선을 이루었다. 평면까지도 연화를 상징하고 방형, 구형, 직각, 둔각, 대소침철凸凹의 변화무쌍한 구조로 되어있어 웅려하고 전아한 맛은 필설로 표현키 어려울만큼 신라 예술의 정수를 발휘하였다.

12. 고려의 건축

신라가 멸망한 고려 태조 18년(서기 935)으로 부터 조선 태조 이성계 즉위 원년(서기 1393년)에 이르는 458년 간을 고려시대라 한다.

태조건국으로 부터 광종 20년(서기 1212년)까지의 277년 간을 전기, 고종 원년(서기 1214년)부터 고려 멸망까지 약 180년 간을 후기로 구분한다면 전기는 신라문화를 계승하고 송(宋)의 문화를 수입하여 자국의 시대 사상을 주입시켜 고유의 발전을 하던 시대이고 후기는 새로 원(元)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시대이다. 태조 왕건이 건국에 당합에 있어서 도성을 송악(개성)에 정하고 만월대 위에 장려한 궁전을 축조하고 시성(市城)을 조성하고 시전을 펴고 방리를 정하여 왕도의 제도가 정비됨과 함께 불교를 흥통시켜 예술을 장려하고 도성 내에 법황사, 왕륜사 등 10사를 창건하여 법당이 꺼질틈이 없었다. 이후 약 200년 간 창평화락한 세월을 보내다가 이자점(李資謙)의 내란 이후 부터 정강(政綱)이 문란하여지고 군신이 상쟁하여 국세가 날로 쇠퇴하여졌다.

송이 망하고 원(元)이 대흥함에 따라 원에 정삭(正朔)을 봉하게 되어 왕의 퇴철 즉위까지 간섭을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모든 제도, 문물, 풍속, 습관 등 일절을 원(元)의 양식에 따르게 되었다. 원이 망하고 명(明)이 일어나자 고려는 다시 명의 정삭을 봉하여 원의 구제에 노력하였으나 국세는 차차 쇠퇴하여지고 예술도 차차 타락되어 갔다.

(1) 왕궁지(王宮址)

송악산을 배경으로 하여 만월대 높은 돈대 위에 웅장하게 섰던 왕궁은 없어지고 지금은 초석만 묵묵히 남아있다. 그 규모가 웅장하고 높은 지대를 이용한 것이 특색이며 여러 문을 거쳐서 정전(正殿)인 회경전(會慶殿)이 있고 회경전 뒤로 건덕전(乾德殿), 장화전(長和殿), 원덕전(元德殿), 만령전(萬齡殿), 장령전(長齡殿), 연영전(延英殿) 등 수많은 전각이 있었는데 그 규모가 웅대하고 사리를 극하였음은 문헌에 정하여 명백하나 지금은 간곳 없으니 애석한 일이다.

(2) 불 사(佛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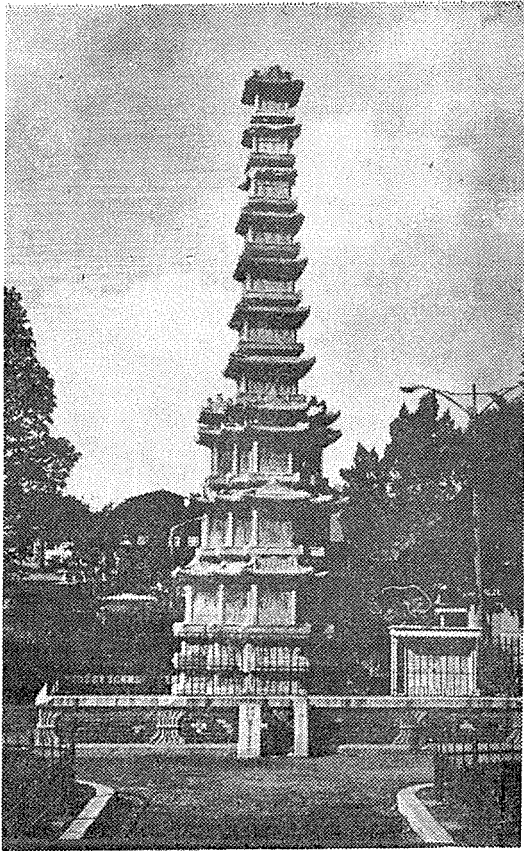
고려 태조의 등극에 다대한 공헌을 이룬 것은 승도 선선사(道諶禪師)의 힘이 컸음으로 전국을 통하여 불법에 귀의하였으니 불교가 성왕하고 각지에 사찰을 많이 조영하게 되었다. 태조 3년에 송악에 정도(定都)한 후부터 왕경 내에 법왕사(法王寺), 왕륜사(王輪寺), 자운사(慈雲寺), 내제석사(內帝釋寺), 사나천선원, 신흥사, 문수사(文殊寺), 원통사(丹通寺), 지장사(地藏寺) 등 10대 사찰을 장려하게 조영하였다. 지금은 간곳 없고 다만 후기의 건축으로 수개의 불사(佛寺)와 석탑(石塔), 부도(浮屠), 석등(石燈), 석비(石碑) 등이 남아있을 뿐이다. 또 개성을 중심으로 왕릉이 많이 조영되었다. 현존한 목조건축물의 명칭과 지명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부석사 무량수전	(영주) 창건...(1277~1227)
	개건...흥무 9년(1376)
" 조사당	선광 7년(1377)
석왕사 응진전	(안변) 흥무 19년(1386)
봉정사 극락전	(안동) (1277~1227)
심원사 보광전	(황주) 흥무 7년(1374)
수덕사 대웅전	(예산) 지태원년(1308)
관음사 원통전(6.25배 소실)	(곡성) 흥무 7년(1374)
성불사 응진전	(황주) 태정 4년(1327)

(3) 탑파(塔姿), 석등(石燈)

고려 시대의 목조건축은 전기(前記)한 바와 같이 현존한 것이 극히 소수이지만 탑파는 비교적 현존한 것이 많다. 초기의 것은 신라양식의 계승이었으나 그후 고유한 발전을 하여 고려 특유의 팔각탑, 육각탑 등의 신(新) 양식이 출현되었고 또 일방으로 폐, 경천사 대리석탑, 화엄사의 지공혜령탑(指空慧靈塔) 등에서 볼 수 있는 서역풍의 원대양식을 먼 석탑도 건조하게 되었다. 현존한 고려시대의 석탑을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예 천	폐, 개심사	5층석탑
개 풍	폐, 개국사	7층석탑
"	폐, 현화사	7층석탑
"	폐, 령통사	5층석탑 3층석탑



<원각사지 다층석탑, 이조 세조 12년(15세기)>

개 품	패, 경천사 배리석다보탑
층 주	패, 정토사홍법국사실상탑
"	패, 사자빈신사 3층사자탑
철 곡	패, 정토사 5층석탑(현재 서울)
영 변	보현사 9층석탑 8각 13층석탑
고 양	홍경사 5층석탑
평 양	영명사 8각 5층석탑
"	대동공원 6각 7층석탑
평 창	월정사 8각 9층석탑
화 순	다담봉석탑 14기 의 15기
개 성	패, 홍국사석탑
"	나옹보제존자 3층탑
"	지광국 사현묘탑
구 레	화엄사지공해령탑
공 주	마곡사 5층석탑

이외에 각 사전(寺殿) 또는 왕릉 앞에 세우는 석등이 다수 건립되었는데 그중 중요한 것을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개 성	패, 개국사석등(현재 개성박물관)
개 품	공민왕릉 및 동비 정릉 석등
"	7릉군 제 3릉 석등
여 주	신록사 보제석종 전석등
회 양	정양사 석등

- 회 양 마하연묘길 상석등
- 라 주 라주읍 서문내석등
- 은 진 관촉사 석등
- 해 주 다라니 석당(陀羅尼石幢)

전반적으로 고려석조 예술은 절정기를 지나 강하게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즉 신라 시대의 웅건건치하고 간결한 양식이 고려 시대에 와서 복잡한 기교적 전개를 표현하여 복잡 화려하고 섬약성을 띤 의장(意匠)으로 변화하였다.

(4) 부 도

부도는 승려의 행적을 기념하는 묘탑(墓塔)으로서 신라 시대에 벌써 상당한 발달을 하여 그 수가 40기(基)나 되었으며 고려기에 와서는 발달의 극에 달하여 초중기의 것들에는 그 기교가 현란한 부도가 많이 남아 있고 탑비를 겸한 부도만 하여도 40여기에 달한다. 양식은 신라 계승형과 특수형과 석종형의 3양식이 있다.

신라계승형

신라 계승형은 기단, 탑신, 옥개의 3부로 되고 기단은 상하로 양면, 복면으로 조각되고 고부석에는 음각 혹은 양각으로 운학신구(雲鶴神龜) 등을 조각하여 석등의 등산(火籠石)과 같은 정다각형 탑신과 그 위에 옥개(屋蓋)를 얹는다. 이 형식중의 우수한 것은 전남 연곡사의 몇개 부도(고려초), 폐흥법사의 진공대사탑(眞空大師塔)(태조 23년 AD 910년), 동(同)혜진탑(광종 26년 AD 975년)등 일명 부도, 패, 거둔사원공국사승묘탑(현종 16년 서기 1025년)등인데 그 중에서 연곡사부도가 가장 아름다우며 기단에 운문(雲紋), 사자(獅子), 팔부중상(八部衆像), 연엽(蓮葉) 등을 옹혼하게 조각하고 탑신의 사천왕상(四天王像)과 가릉빈가와 2중난간, 옥개(屋蓋)의 보주며 구석구석 각양각태의 조각으로 현란하게 꾸며 놓아서 이 형식의 부도중 제일 위의 것이다. 고달원 원종대사혜진탑(高達院元宗大師慧眞塔)과 일명탑(逸名塔)은 탑신의 사천왕상부각(四天王像浮刻)도 좋거니와 기단의 신구와 운룡(雲龍)을 옹혼(雄渾)한 수법으로 원후(丹厚)하게 부각(浮刻)한 것은 연곡사 부도(藕谷寺浮屠)와 함께 가장 우수한 작품이다.

특 수 형

특수형의 부도는 홍법대사실상탑(弘法大師實相塔, 증북중주 慶淨土寺內, 현종 8년 서기 1017년)과 지광국사 현묘탑(智光國師玄妙塔, 강원도 원주, 패, 법천사 내 선종 11년 서기 1085년)이니 실상 탑은 그자 형으로 된 나죽한 고부석(鼓腹石)을 상부는 우미한 양련(仰蓮)으로 중부는 세교한 운룡문(雲龍文)으로 하부는 옹혼한 복련엽(覆蓮葉)으로 각각 달리 조각하고 탑신은

세끼로 묶어놓은 구형(球形)이고 보개형옥개(寶蓋形屋蓋)는 그 이면에 연화문과 비천녀(飛天女)를 은은하게 새겼다. 실상탑은 참신 독특한 의장으로 동양 부도계의 기세를 뽐내고 있다. 지광국사 현묘탑은 그중 기단과 탑신을 보다 방형(方形)으로 하여 지대석 네귀에는 용의 발톱처럼 조각한 것이 내밀고 기단 위에는 네귀에 석사자를 앉혀었다.

석 종 형(石鍾形)

석종형은 중기 이후로 부터 탑신이 석종형으로 변화한 것인데 전기 2양식의 퇴보된 것이다.

13. 이조의 건축

이조의 건축은 불교탄압 정책으로 인하여 한국건축 발달의 원동력이던 불교문화가 쇠퇴함에 따라 불교건축이 급속도로 쇠퇴하고 대신 유교건축이 생기게 되었으나 전반적으로 국세가 퇴세함에 따라 건축도 이에 따라 차차 퇴보하기 시작하였다. 더우기 임진왜란으로 인하여 종래의 불교건축도 산간벽지에 다소 남길 뿐이고 대부분이 소실 또는 파괴되어 글일 현존한 목조 건축물은 대개가 임진왜란 이후의 것이다. 이조 시대의 건축물은 각양각색으로서 성곽, 궁궐, 문묘, 관왕묘, 서원, 객사, 당사, 사직, 군영, 루각, 정자, 주택, 불사, 탑과, 부도, 석비, 왕릉 등 실로 광범한 것으로 이조 건축술의 고유한 양식을 형성하였다. 이조 시대의 주요한 건축물을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1) 성 곽(城廓)

	<u>서울성곽</u>	
	남대문(충예문)	세종 30년(서기 1448년)
	동대문(홍인문)	고종 6년(1869)
개성	<u>개성성곽</u>	
	남 대 문	태조 3년(1394)
평양	<u>평양성곽</u>	
	보 통 문	성종 4년(1473)
	대 동 문	선조 9년(1576)
수원	<u>수원성곽</u>	정조 20년(1796)
	장안문(북문)	" (")
	팔달문(남문)	" (")
	화홍문(북수문)	정조 20년(1796)
	의주남문	중종 16년(1521)
	영변남문	정조 13년(1789)
	전주종남문	이조중기

(2) 궁 궐(宮闕)

서울	<u>경복궁</u>	
	광 화 문	고종 7년(1870)
	근 정 전	"

근정문 및 회랑	고종 7년(서기 1870년)
강 령 전	"
교 태 전	"
경회루	"

창덕궁

돈화문	초기 15세기 말경
인정문	순조 4년(서기 1804년)
인정전 및 회랑	
낙선재	현종 13년(서기 1847년)

경희궁(현 서울중고등학교터)

승정전(현 동국대학구내로 이전)	
	광해군 8년(1616)

창경궁

명정전	성종 15년(1484)
명정문	"
홍화문	이조 초기 15세기 말경

경운궁(덕수궁)

중회전	광무 10년(1606)
함녕전	광무 8년(1904)
석조전	융희 3년(1909)

(3) 문 묘(文廟)

서울	문묘대성전	선조 33년(1600)
대구	문묘대성전	선조 38년(서기 1605)
경주	문묘대성전	선조 33년(" 1600)
경주	향교명륜당	광해 6년(" 1614)
개성	문묘대성전	선조 34년(" 1601)
안동	문묘대성전	초기
강릉	문묘대성전	초기
장수	향교대성전	이조 중기
해주	문묘대성전	
신천	문묘명륜당	

(4) 관왕묘(關王廟)

서울	동묘(봉취명만세덕창전)	선조 23년(1590)
서울	남묘(명도독진린창전)	광무 5년(서기 1901년)
"	북묘(고종창전)	고종 20년(서기 1883 ")
개성	관왕묘(청상등창전)	고종 31년(" 1894 ")
남원	관왕묘(명도독유정창전)	숙종 4년(" 1716년)
성주	관왕묘(명장모국기창전)	선조 31년(" 1598년)
안동	관왕묘(명진정영도사설호신창전)	후기

(5) 서 원(書院)

달성(達城)	도동서원강당 및 사당	(서기 1604년)
경주	옥산서원 독립당양진암(이언적은서지)	
경주	옥산서원	중종 27년(1532) 선조 5년(1572)
영주	소수서원강당 및 문선공묘	중종 37년(1542)

안동	도산서원(이퇴계은서지)	전교당, 상덕사	선조 7년(1574)	창령 관룡사(昌寧觀龍寺)약사전	이조 초기
				" " 대웅전	숙종 37년(1712)
개성	송양서원(정몽주고택)		선조 6년(1573)	산청 울곡사(山淸栗谷寺)대웅전	이조 초기
	(6) 객 사(密舍)			경북 예천용문사(醴泉龍門寺)대장전	현종 11년(1670)
안변	객사가학루		성화 22년(1486)	대구동화사 대웅전, 금당암, 근락전	선조 33년(1600)
강릉	객사문		이조 초기	경주 불국사 대웅전	영조 41년(1765)
성천	동면관강선루			경주 불국사 극락전	영조 27년(1751)
	(7) 당 사(堂祀)			영천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이조 초기
서울	종묘	창건...이태조	4년(1395)	안동 개복사 원통전	"
		개건...선 조	41년(1608)	안동 봉정사 대웅전, 화엄강당, 고금당	"
서울	철궁(연우궁, 육상궁, 덕안궁, 경우궁, 선희궁, 내빈궁, 제경궁)		영조원년(1725)	전남 해남 대흥사(海南大興寺)	
	(8) 사 직(社稷)			영암 도갑사(靈岩道岬寺) 해탈문	성종 4년(1473)
서울	사직단, 정문		이조 중기	순천 송광사(順川松廣寺) 국사전, 조사전, 용화전, 백운당, 청운당, 하사당	이조 초기
	(9) 군 영(軍營)			구례 화엄사(求禮華嚴寺) 각황전	인조 21년(1643)
여수	진남관		16세기 경	" " 대웅전	인조 14년(1638)
충무	세병관		이조 중기	강진 무위사극락전	이조 초기
	(10) 누 각(樓閣)			순천 송광사약사전	16, 7세기경
안동	임청각		이조 중기	" " 영산전	인조 17년(1639)
평양	부벽루		광해 4년(1612)	화순 쌍봉사대웅전	이조 중기
삼척	죽석루		이조 중기	장흥 보림사대웅전	이조 초기
밀양	영남루		현종 10년(1844)	전북 김계 금산사 머륜전, 대적광전	인조 13년(1635)
안주	백상루		영조 30년(1754)	부안 내소사대웅보전	이조 초기
남원	광한루		이조 중기	부안 개암사 대웅전	"
진주	죽석루		영조 28년(1752)	고창 선운사 대웅전	17세기경
	(11) 정 자(亭子)			충북 보은 법주사(報恩法住寺)	
강릉	해운정		중종 25년(1530)	팔상전, 대웅전,	인조 2년(1624)
정읍	피향정		이조 중기	충남 청양 장곡사 상대웅전	이조 초기
제주	관덕정		18세기 경	청양 장곡사 하대웅전	이조 중기
해주	부용당			서산 개십사 대웅전	성종 15년(1484)
수원	방화수류정(동북각루)		정조 20년(1796)	부여 무량사 극락전	이조 중기
	(12) 주 택(住宅)			강원 간성 건봉사(杆城乾鳳寺)	
회덕	동춘당		이조 중기	양양 낙산사(襄陽洛山寺)	
안동	양진당		"	회양 유점사, 포훈사, 신계사	
강능	오죽헌		중종 때(1522~1566)	" 장안사(長安寺) 사성전, 대웅전	
	(13) 불 사(佛寺)			평창 월정사(平昌月精寺)	
경남	양산통도사(梁山通度寺)대웅전, 관음전,			춘성 청평사(春城淸平寺) 극락전, 회전문,	이조초
		응진전...선조때		경기 여주 신흥사 조사당	예종 19년(1369)
동래	범어사(東萊梵魚寺)대웅전		숙종 6년(1680)	강화 정수사 법당	이조 초기
합천	해인사(陝川海印寺)장경판고		성종 19년(1488)	" 건봉사 대웅전, 약사전	인조 3년(1625)
	" " 대적광전		영조 45년(1769)	개풍 관음사 대웅전	이조 초기
하동	쌍계사(河東雙溪寺)			황해 황주 성불사 극락전	이조 초기
	대웅전, 팔상전, 탑전, 금당		인조 때	신천 자혜사 대웅전	이조 초기
				신천 패엽사 한산전	"
				함남 안변 석왕사 호지문	태조 19년(1392)

안변 석왕사 대웅전	영조 7년(1731)
평북영변 보현사대웅전, 만세루	인조 14년(1639)
정주 심원사 대웅전	이조 초기
평남 순천 안국사 대웅전	효종 3년(1653)

(14) 탑 파(塔婆)

서울 패, 원각사 대리석다층탑	세조(世祖) 12년(1467)
여주 신록사 7층석탑	성종 3년(1472)
양양 낙산사 7층석탑	세조 13년(1468)

(15) 부 도(浮屠)

합천 해인사 홍제암송운묘탑	광해 4년(1612)
구례 화엄사 벽암묘탑	현종 4년(서기 1663년)
회양 장안사 무의당영운탑	후기
" 금강산 백조암삼담묘탑	"
보은 법주사 세존사리장탑	"

(16) 석 비(石碑)

서울 대원각사비	세종 12년(서기 1430년)
" 대묘비	인조 4년(서기 1626년)
양주 태조건원릉비	태종 9년(서기 1409년)
광주 태종현릉비	세종 6년(서기 1424년)
광주 대정황제공덕비	인조 17년(서기 1639년)
개성 연복사탑중창비	태조 19년(서기 1392년)
회양 금강산백조암서산대사비	인조 10년(서기 1632년)
구례 화엄사벽암선사비	현종 4년(서기 1663년)
영암 도갑사도선국사비	인조 14년(서기 1636년)
합천 해인사홍제암송운대사석자비광해4년(서기 1612년)	
경주 옥산서원이해재신도비	선조 10년(서기 1577년)

(17) 왕릉(王陵)

익조지릉 및 비숙릉(翼祖智陵 及 妃淑陵)	안변, 문천
도조의릉 및 비순릉(度祖義陵 及 妃純陵)	함주
환조정릉 및 비릉(桓祖定陵 及 妃陵)	함주
목조덕릉 및 비안릉(穆祖德陵 及 妃安陵)	함주
태조 건원릉(太祖健元陵)	양주, 동구릉

순조 인릉(純祖仁陵)	교하
태종 헌릉(太宗獻陵)	서울 내곡동
세종 영릉(世宗英陵)	여주
인조 장릉(仁祖長陵)	파주
세조 광릉(世祖光陵)	양주
성종 선릉(成宗宣陵)	서울 삼성동
효종 영릉(孝宗寧陵)	양주

상기와 같이 이조 시대의 건축은 실로 각종 자양이 있으나 현존한 전기 제(諸) 목조건물은 임진왜란 후 선조(宣祖) 광해군조 이후의 것이 대부분이다.

14. 결 론

이상으로서 대략적이나마 한국건축이 어떻게 발생하여 어떻게 발전해 내려왔는가를 살펴보았다.

다신 한번 도리켜 보건데 한국 건축은 상고 시대의 원시적인 움막집으로부터 시작하여 문명의 발달에 따라 궁전건축과 종교건축으로 시종하였다.

이것은 비단 한국건축 뿐만이 아니라 세계건축 발달과정과 공통된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조 후기 부터는 사회 상태의 변화에 따라 궁전과 종교건축뿐 아니라 사회 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용도의 건축물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일찍부터 우리나라는 중국대륙을 통하여 불교와 유교가 수입되어 우리 문화발달의 원동력이 되었으며 불교의 영향을 받아 불사, 가람, 당탑, 부도, 석굴, 석등 등의 불교건축이 발달했었고 유교의 영향으로서 궁궐, 성곽, 문묘, 객사, 서원, 주택 등 유교적인 건축이 많이 발달했었다.

이 모두가 당초에 있어서는 중국양식 그태로를 모방한 것이 었으나 세월의 흐름에 따라 한국적으로 흡수 소화시켜 한국 고유한 양식으로 진보 발전하였던 것이다.

우리 민족은 선천적으로 예술적인 두뇌가 우수하여 신라 때 부터 훌륭한 예술품을 많이 만들어 놓았지만 고려 중기 이후 부터 수차 외적의 침략을 받아 병화로 인하여 파괴 소실 또는 탈거당하는 등 무수한 수난을 겪어왔다.

우리는 일제 통치 39년 만에 상실한 국권을 되찾았고 대한민국정부 수립한지도 벌써 20 성년이 넘었으니 민족의 단결과 애국심을 더욱 공고히 해서 또다시 외적의 침략을 당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하며 조상으로 부터 물려 받은 문화적 유산을 잘 유지 보존함은 물론 민족중흥의 기상으로 새로운 건설에 용왕 매진해야 할 것이다.

<끝>

참고 문헌

- 궁궐지
- 화성성역의궤
- 고적도보, 조선총독부
- 이조왕릉
- 국보도록, 문교부
- 이조실록
- 왕궁사, 이철원
- 조선과 건축, 조선건축회
- 고려말 조선초의 목조건축에 관한 연구, 삼산신삼
- 조선탑파의 연구, 고유섭
- 고등건축학
- 조선미술서대요, 김용준
- 남해문수리보고서, 서울시교육위원회
- 서울특별시사(고적편), 시사편찬위원회
- 세계미술전집
- 조선의 건축과 예술, 관야정